

신한금융그룹 TCFD 보고 기반 기후공시 대응 현황

- 신한금융그룹 TCFD 보고서를 중심으로 -

신한금융지주회사 ESG기획팀

2023.8.18

1

TCFD의 소개

1. TCFD 소개

-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 G20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창설
- 금융섹터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Why TCF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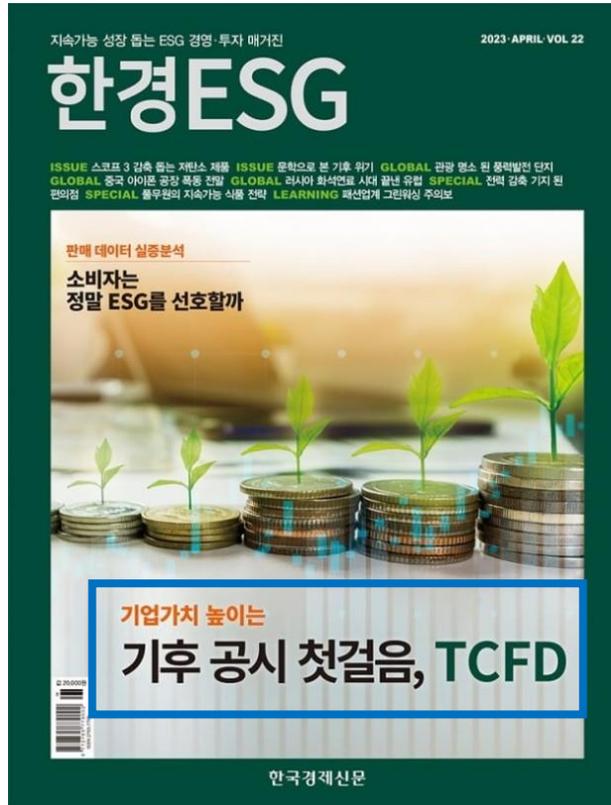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국제결제은행 등으로 구성된 **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NGFS 6대 권고안 발표('19. 4월)**
 - ① 금융감독절차에 기후리스크 반영
 - ② 중앙은행 포트폴리오의 지속가능성 통합
 - ③ 공공부문의 기후관련 정보제공 요청
 - ④ 중앙은행, 감독기관,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역량 강화
 - ⑤ **TCFD관련 정보공시 요구**
 - ⑥ Green Taxonomy 개발

전세계 4,000개 이상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이 TCFD 권고안에 따른 보고서 공개('23.7월 기준)
- 국내 최초로 신한금융그룹 지지선언('19.9월)

TCFD 공시 항목

권고안	11개 정보공개 항목
지배 구조	1.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이사회 감독 설명
	2.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설명
전략	3. 조직의 단/중/장기 기후변화 위험/기회 요인 설명
	4. 기후변화 관련 사업/전략/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5. 2°C 이하의 시나리오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전략 고려한 조직의 회복탄력성 설명
리스크 관리	6.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프로세스 설명
	7.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조직의 프로세스
	8.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식별/평가 조직 위험 관리 통합 방식
지표 및 목표	9. 조직의 전략,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사용된 지표
	10.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11.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1. TCFD 소개 - TCFD는 왜 기후 공시의 첫 걸음인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은 기후 정보 공시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 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은
TCFD를 기후 공시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 한경ESG 4월호 20p

1. TCFD 소개 - TCFD는 재무(Financial) 정보 공개가 목적

앞으로 IFRS 주관의 ESG 공시 흐름에서는 기존과 공시 시기, 방법, 내용,
특히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기존 ESG보고 공시	공시 형식/범위	IFRS ISSB 지속가능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달리 구체적인 서식,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이 표준을 선택, 자유롭게 기재 • 보고 범위 또한 자율적 채택 	공시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SB 공시 표준에서 정의한 서식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 • 연결 기업의 ESG 정보 내용 의무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고서로 자발적으로 위치 선정 *자발적 공시에 따라 ESG 정보 부실 등에 법적 책임 無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목적 재무보고 형식으로 기업의 기존 사업보고서로 의무적 편입 *사업보고서 內 ESG 정보 부실 파악 시 법적 책임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외부 ESG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자발적 공시 	재무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ESG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대응 방안에 초점 둔 의무적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재무 상태에 연계할 필요 無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적 중요성 기준에 근거한 정보로, 재무적 연계성 고려 필요 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평가 및 ESG 경영 홍보로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특성 반영 및 표준화 통해, ESG 평가 및 기업가치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신한금융그룹은 2018년 9월 TCFD 지지선언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전략 수립/실행 중



분야	세부 정보 공개 사항
①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사회의 감독 설명 b)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 설명
②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단기/중기/장기에 파악한 기후변화 위험, 기회 설명 b)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c) 2°C 이하의 시나리오 포함,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한 조직의 회복 탄력성 설명
③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후변화와 관련 위험 식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설명 b)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위한 조직 프로세스 설명 c)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가 조직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 되는지 설명
④ 지표와 감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공개 b) Scope1, Scope2, 그리고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c) 기후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목표 성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대상을 설명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① 거버넌스

실무진에서 경영진, 이사회에 이르는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경영진 KPI(전략과제) 內 ESG 반영을 통해 평가/보수에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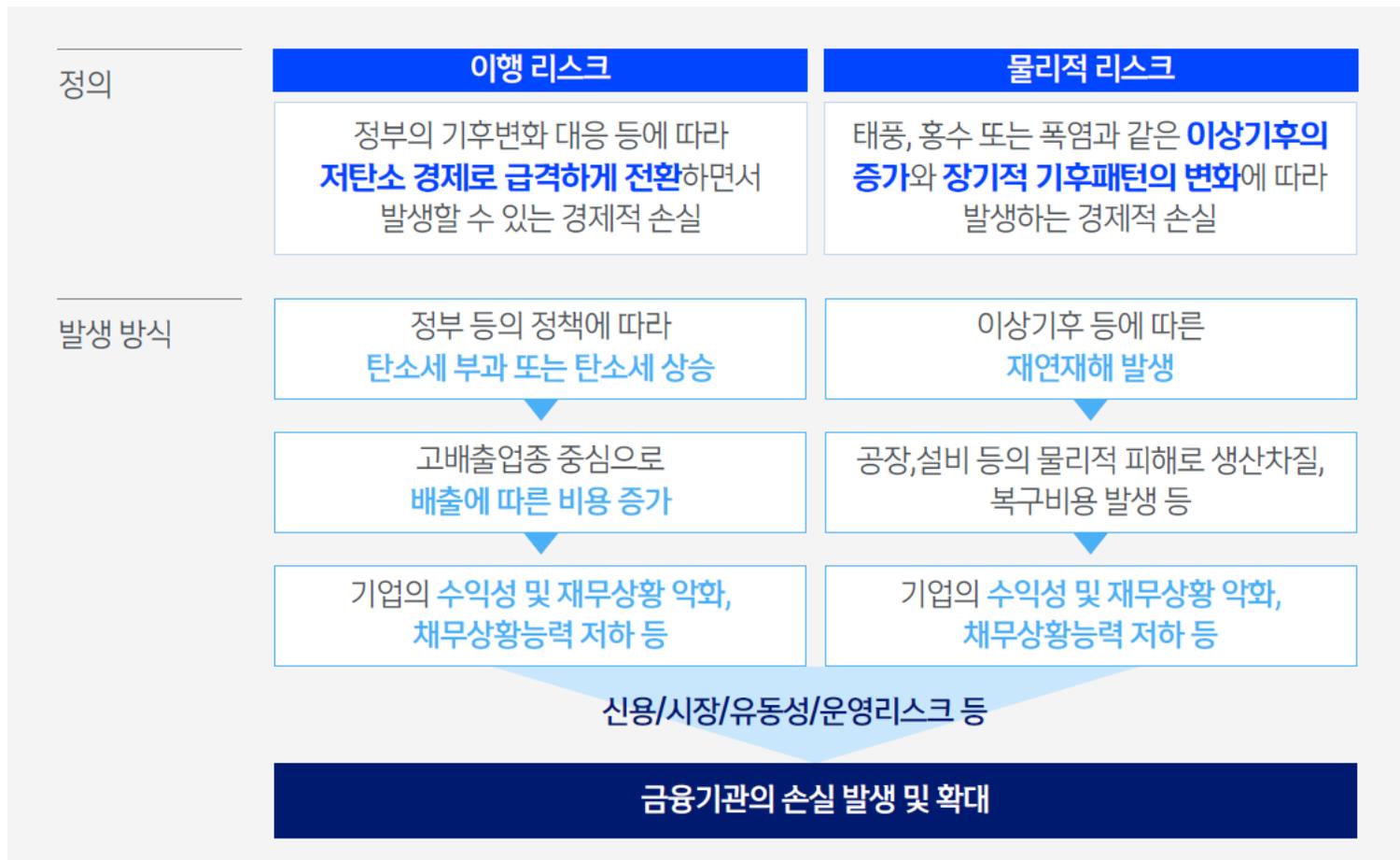


경영진 KPI

- ▶ 신한은 2018년 그룹 주요 전략과제에 ESG를 반영하는 논의를 통해 2019년 그룹 CEO 뿐 아니라 신한은행 전 그룹사 CEO 대상, ESG 성과를 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2022년에는 그룹 CEO의 전략과제 중 ESG 평가비중을 15%로 확대하였으며, ESG 금융 확대와 내부/금융배출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반영하였습니다.
- ▶ 그룹사 CEO들의 경우, 그룹사 규모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비중을 차등하였습니다.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기후리스크 인식

기후리스크는 **이행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TCFD 2018),
 이행리스크는 저탄소 경제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하며,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의미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기후리스크의 특성

기후리스크는 기존의 리스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분석 방식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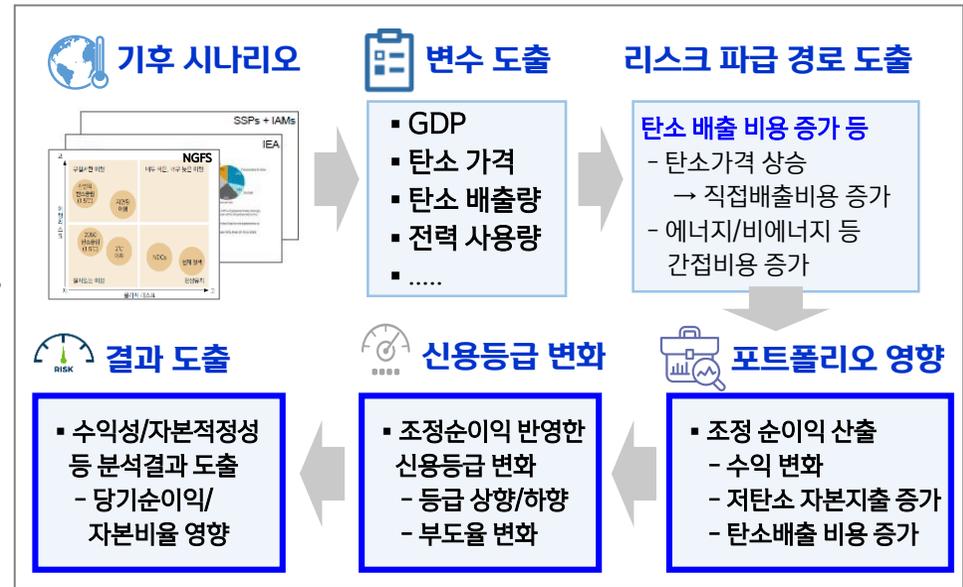
- 표준적인 시나리오 분석 방법은 부재하며, 중앙은행(ECB 등), 데이터/컨설팅 업체 방법론 등이 혼재

기후리스크의 특성

- ✓ (과거와 다른) **비선형적 리스크 발생 패턴**
 -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음
- ✓ **영향은 불확실하나, 리스크 발생은 확실**
 - 영향의 정도는 불확실하지만,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 **리스크 파급 경로와 영향이 매우 복잡**
 - 기후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이 미치는 경로와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발생
- ✓ **리스크가 발현되는 기간이 장기적인 특성**
 - 금융기관 자산인 여신상품의 만기와 분석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존재

미래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분석 필요

기후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 및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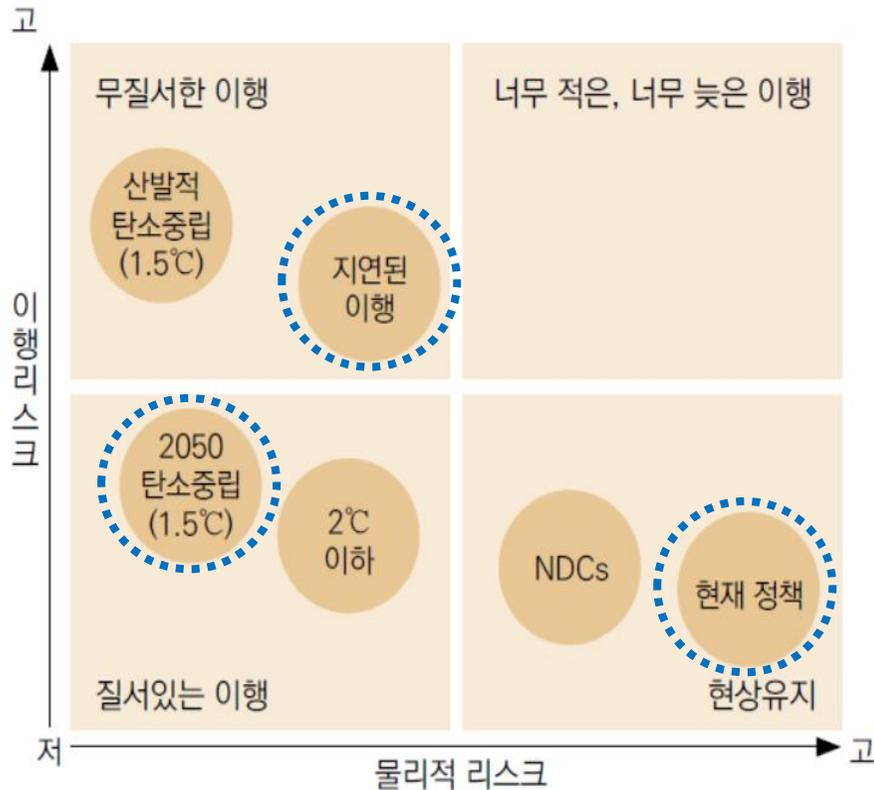


- ✓ **공통적/ 표준적인 시나리오 분석 방법은 부재한 상황**
 -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도입 초기단계로 아직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론 또는 모형은 없는 상황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NGFS의 6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신한은 분석 결과 가장 영향이 구별되는
3개 시나리오에 대해 영향을 공시

[NGFS 기후변화 시나리오]



<현재 정책 유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3°C 상승
 - 기후변화를 막기엔 부족한 수준의 기후정책 시행
 - 높은 수준의 탄소배출에 따라 물리적리스크는 심각하나, 이행리스크는 없거나 제한적임

<자연된 이행> 2030년 이후 강력한 기후정책이 도입
 - 2030년까지 현재 정책을 따르다가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력한 기후정책이 도입되는 시나리오
 - 일정기간 지연된 후, 정책 도입후부터 탄소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이행리스크가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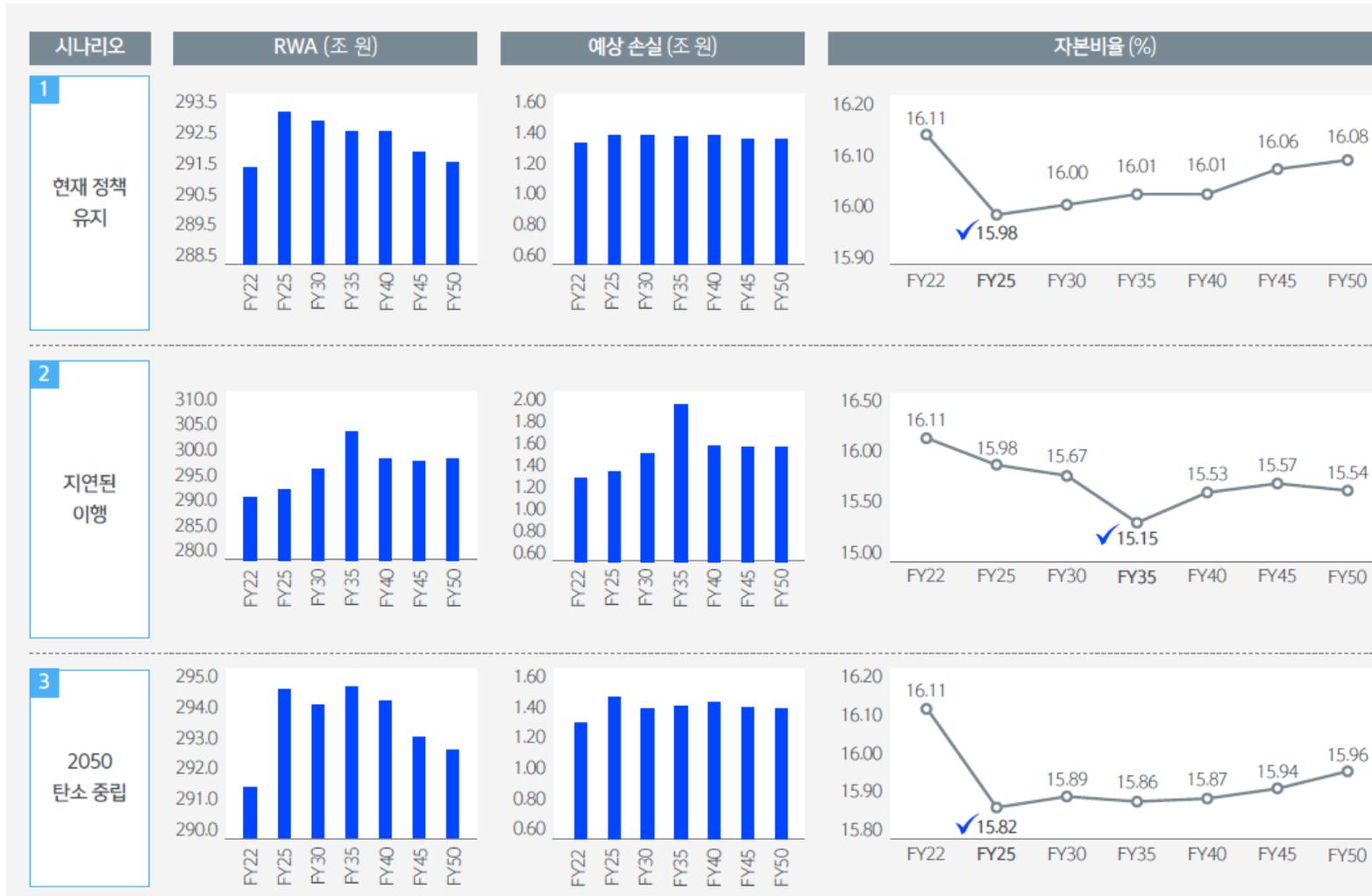
<2050 탄소 중립 (1.5°C)>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
 - 강화된 기후정책을 통해 2100년말까지 지구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5°C 이하로 제한
 - 물리적리스크 영향은 낮으나 이행리스크는 점진적 증가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 녹색금융협의체,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 금융 활성화 목적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전세계 95개 기관 참여 중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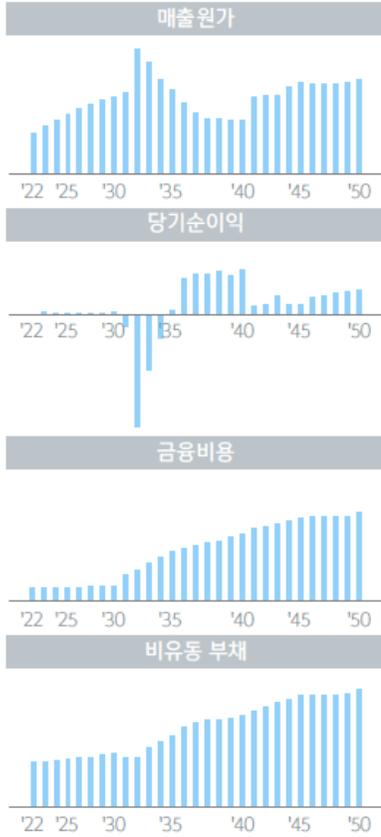
그룹의 자본비율은 지연된 이행 시나리오에서

기준 시점인 2022년 대비 최대 0.96%p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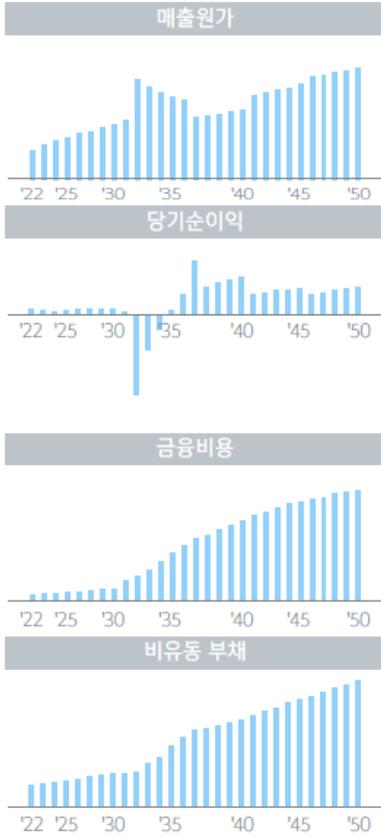


[참고] 고탄소 업종의 이행 리스크 분석 결과: 지연된 이행 시나리오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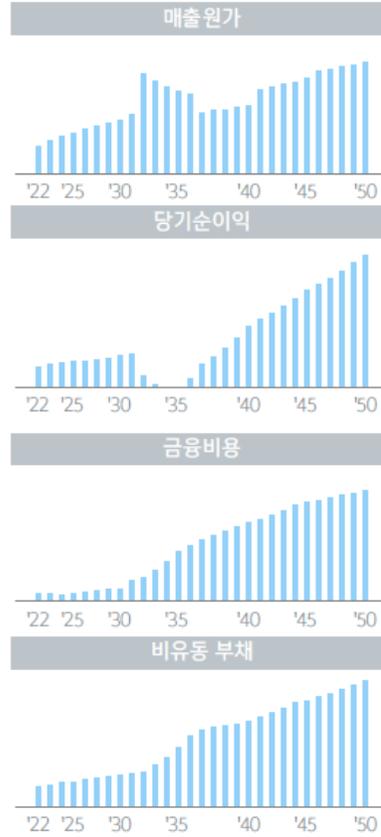
고탄소 업종(A 발전 업체) 재무정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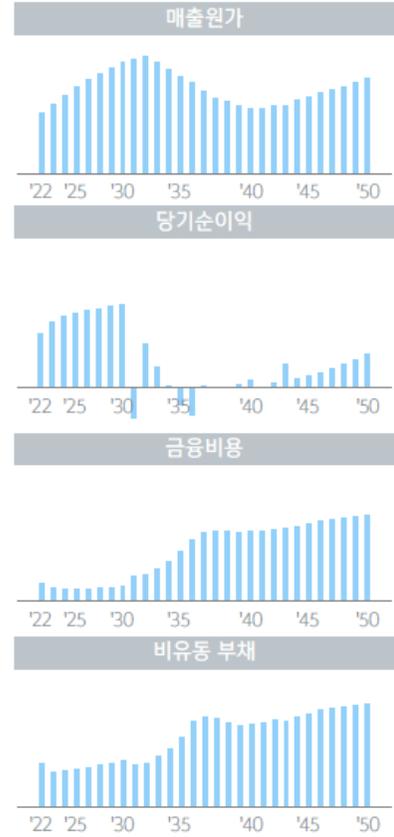
고탄소 업종(B 철강 업체) 재무정보 변동



고탄소 업종(C 시멘트 업체) 재무정보 변동



고탄소 업종(D 정유 업체) 재무정보 변동



신용
등급
변동

기준 연도	등급
2022	✓ A-
2025	A+
2030	BBB-
2035	✓ B+
2040	BBB
2045	BB+
2050	✓ B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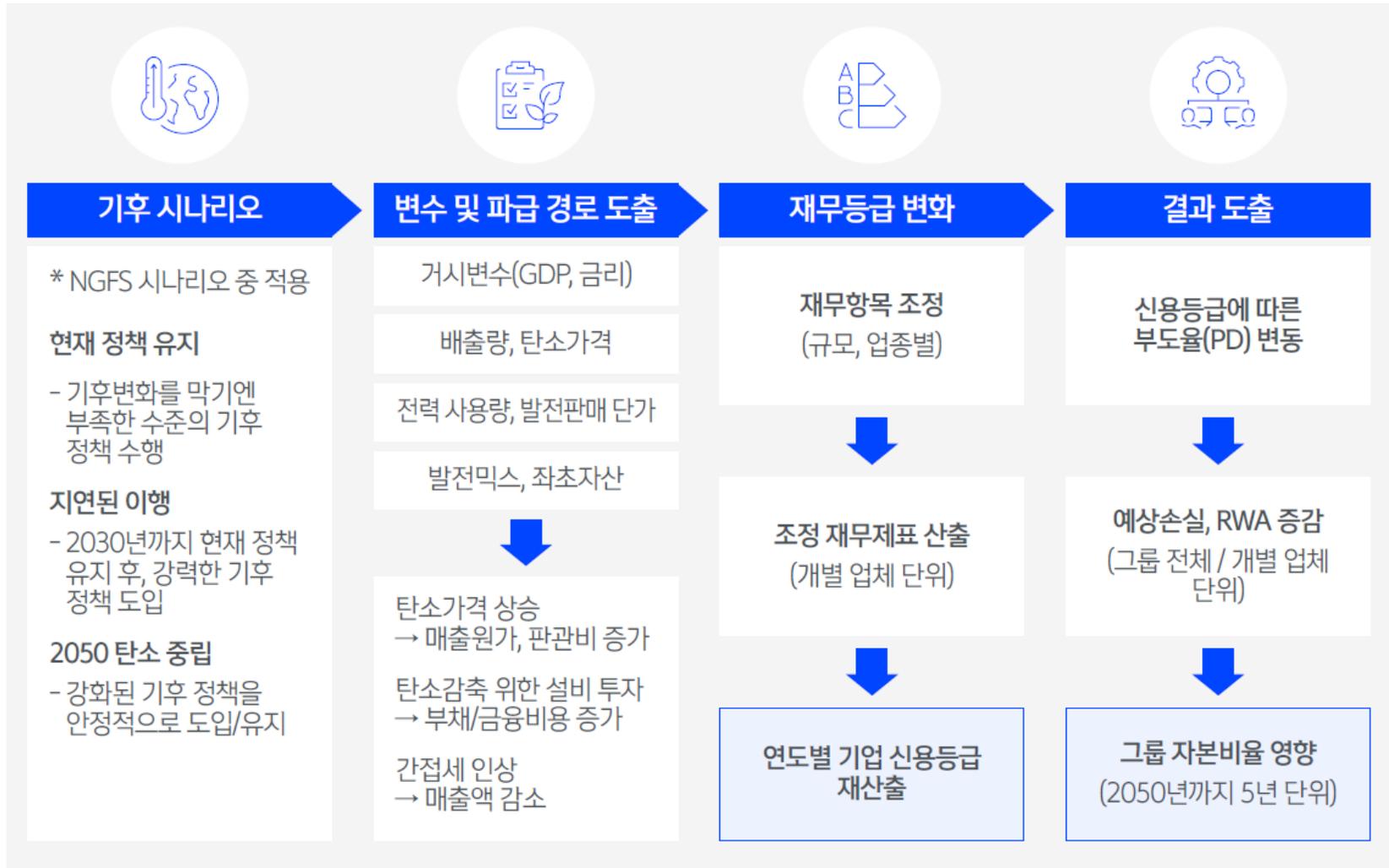
기준 연도	등급
2022	✓ AA-
2025	A+
2030	BBB+
2035	✓ BB-
2040	BBB
2045	BBB+
2050	✓ A-

기준 연도	등급
2022	✓ A+
2025	A
2030	BBB+
2035	✓ BB-
2040	BBB
2045	BBB
2050	✓ BBB

기준 연도	등급
2022	✓ AA-
2025	AA
2030	A+
2035	✓ BBB-
2040	BBB+
2045	BBB+
2050	✓ BBB+

[참고] 이행 리스크 분석 방법

거시변수 뿐 아니라, 배출량, 탄소가격, 기업 전력사용량 등 기후 시나리오의 변수와 **포트폴리오 기업 대상 파급 경로를 감안하여 재무등급에 대한 변화**를 주는 방식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IPCC에서 제시하는 2개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신한은 분석 결과 가장 영향이 구별되는
2개 시나리오에 대해 영향을 공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 IPCC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농도를 정하였으며, 같은 복사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 (Representative)'라는 표현을 사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Pathways)'라는 의미를 포함
- RCP숫자는 온실가스로 인한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양(W/m²)을 의미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 경제경로)

-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위해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강도(기존 RCP 개념)와 함께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라 5개 시나리오로 구분
- 인구통계, 경제발달, 복지,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 발달, 사회적 인자, 정책을 고려
- SSP 첫번째 숫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노력을 의미하며, 두번째 숫자는 RCP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W/m²)을 의미

구분	의미	CO ₂ 농도(2100년)
RCP2.6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 감축 수행	450ppm
RCP4.5	온실가스 저감정책 상당히 실현	540ppm
RCP6.0	온실가스 저감정책 어느 정도 실현	670ppm
RCP8.5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940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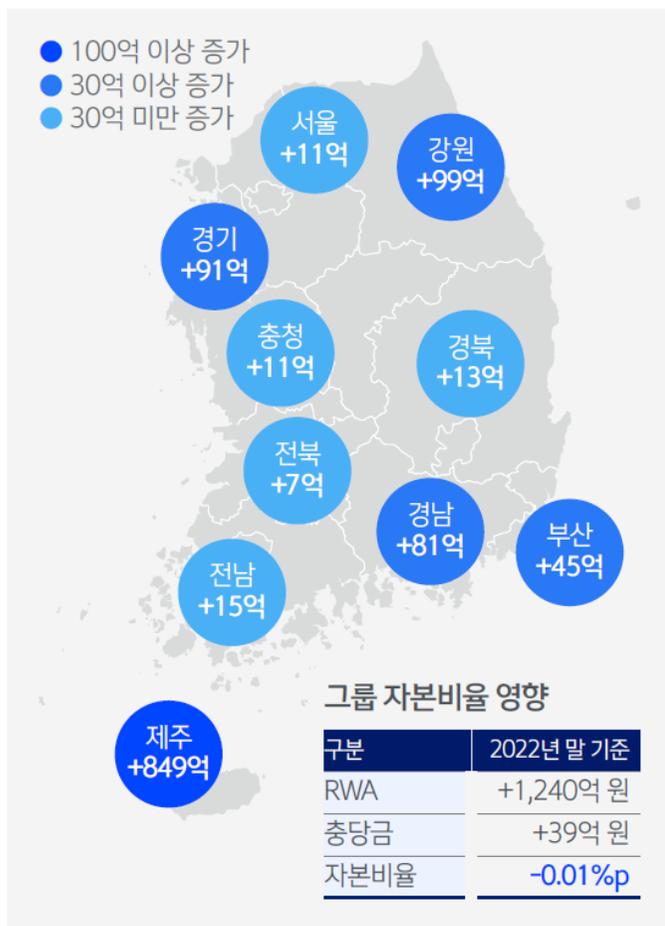
구분	의미
SSP1-2.6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SSP2-4.5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
SSP3-7.0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하는 경우
SSP5-8.5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물리적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결과

그룹의 자본비율은 RCP 8.5 / SSP5-8.5 2개 시나리오 상에서 기준 시점인

2022년 대비 공통적으로 최대 0.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지역별 RWA 영향(RCP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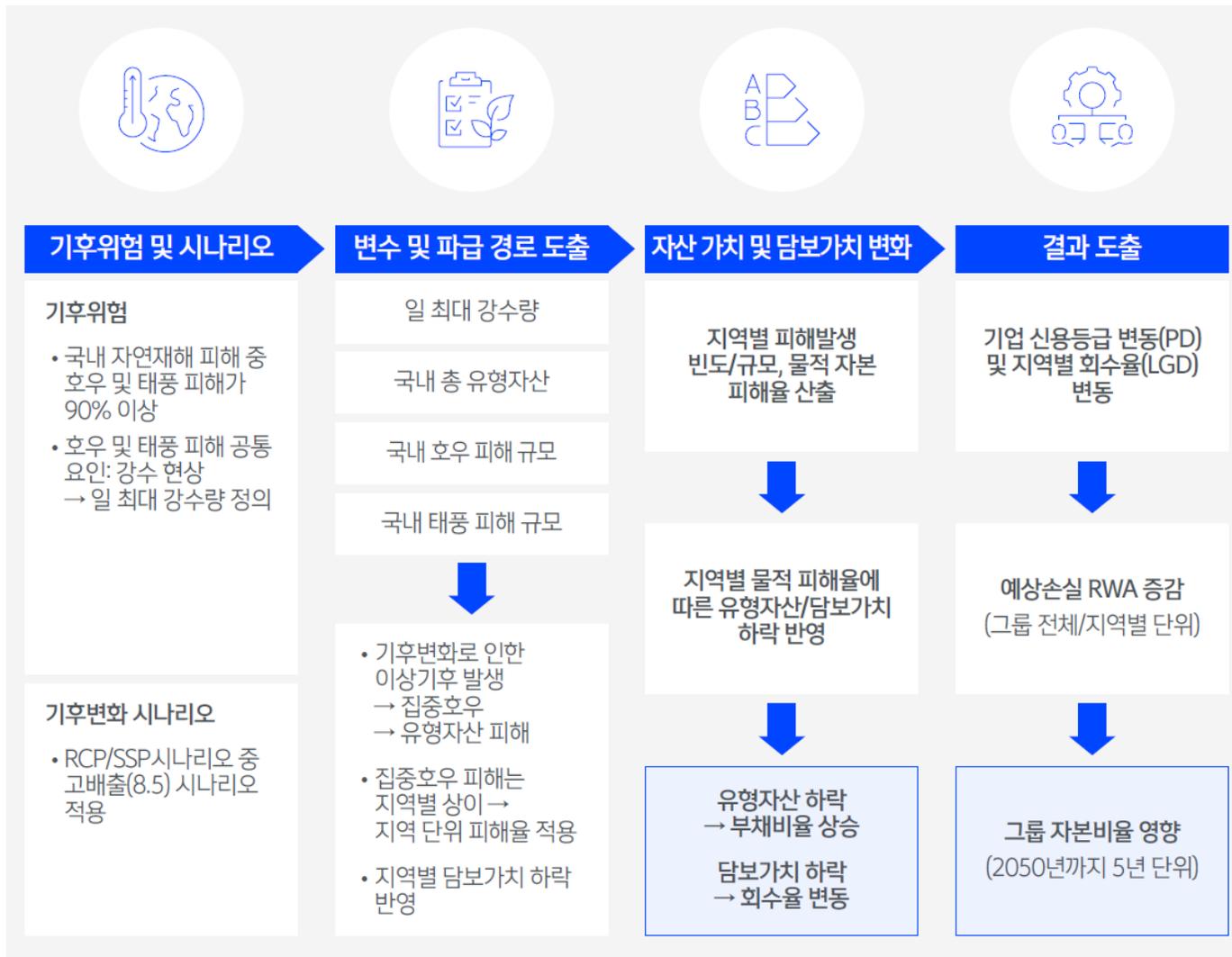


지역별 RWA 영향(SSP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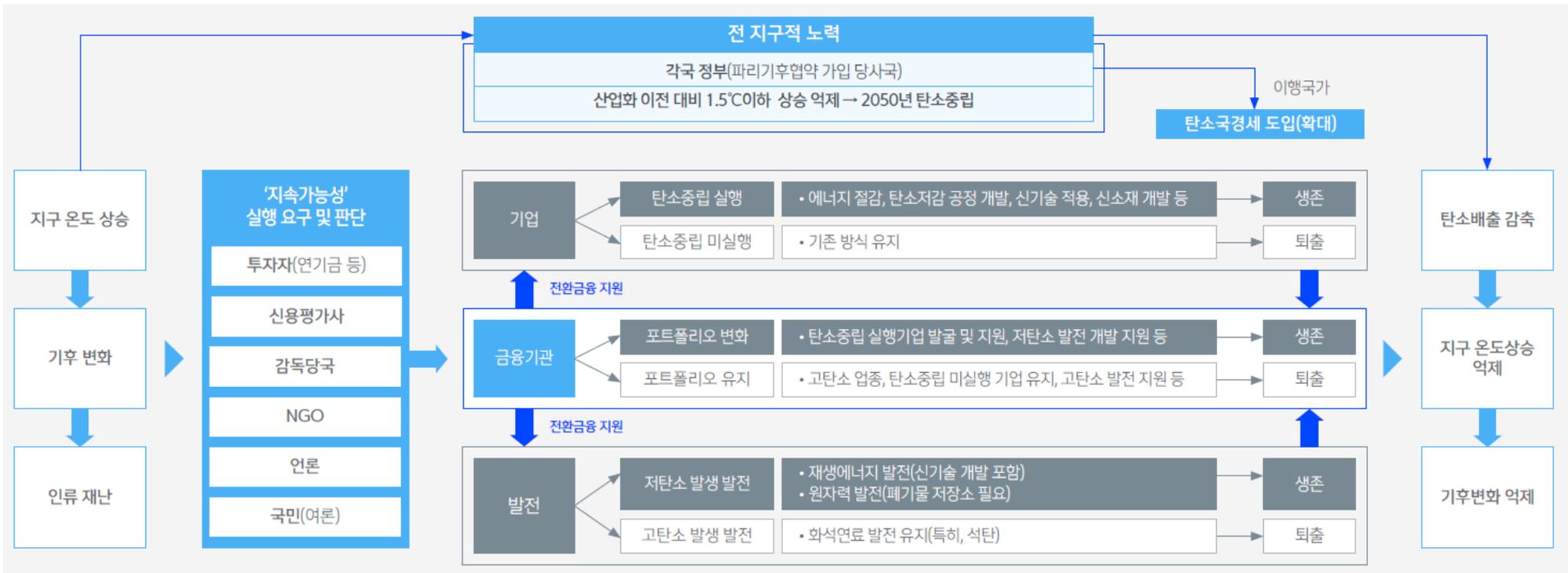
[참고] 물리적 리스크 분석 방법

강수량과 호우/태풍 피해 사건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피해발생빈도 및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일 최대 강수량 시나리오 및 국내 총 유형자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연단위 물적 자본 피해율 산출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기후변화 기회요인

‘실물경제의 탈탄소화’를 핵심적인 요소로 고객들의 전환을 지원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객의 참여와 금융기법 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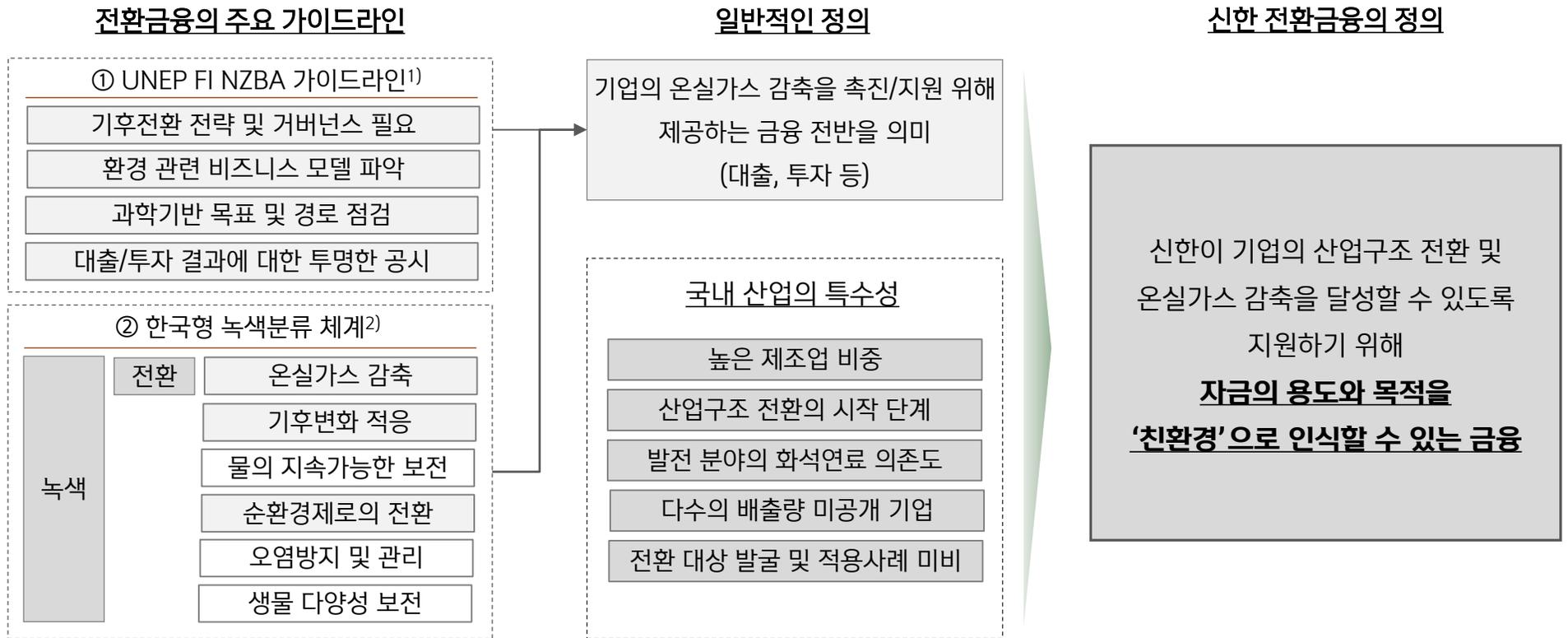


- 투자회수는 실물 경제의 탈탄소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즉,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탄소 집약적 섹터들은 규제가 적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전히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높은 배출량을 유발할 수 있음
- 은행이 더 이상 해당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탄소 집약 섹터에 속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나 자문 서비스를 통한 Net Zero를 위한 전환 계획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기후변화 기회요인 - 전환금융

신한이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용도와 목적을 '친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융



1) UNEP FI NZBA(Net-Zero Banking Alliance)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 NZBA에서 적용하는 전환금융 평가기준

2)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 녹색·전환 부분의 온실가스감축 항목과 기후변화 적응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전환금융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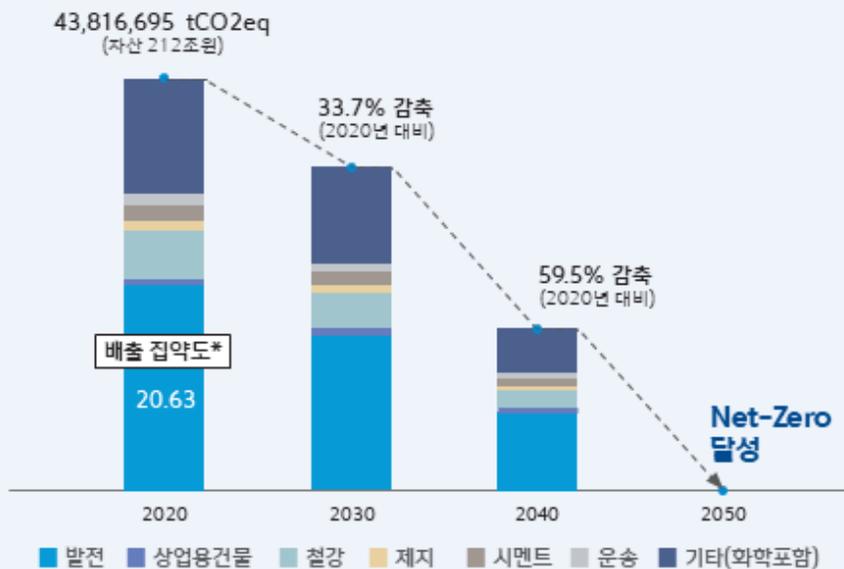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② 전략 : Zero Carbon Drive

205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Zero로 만들고, 2030년까지 친환경 금융 30조원을 달성한다는

신한 Zero Carbon Drive

금융배출량 (자산의 탄소배출량)

'30년까지 금융배출량
33.7% 감축, '50년까지 Net-Zero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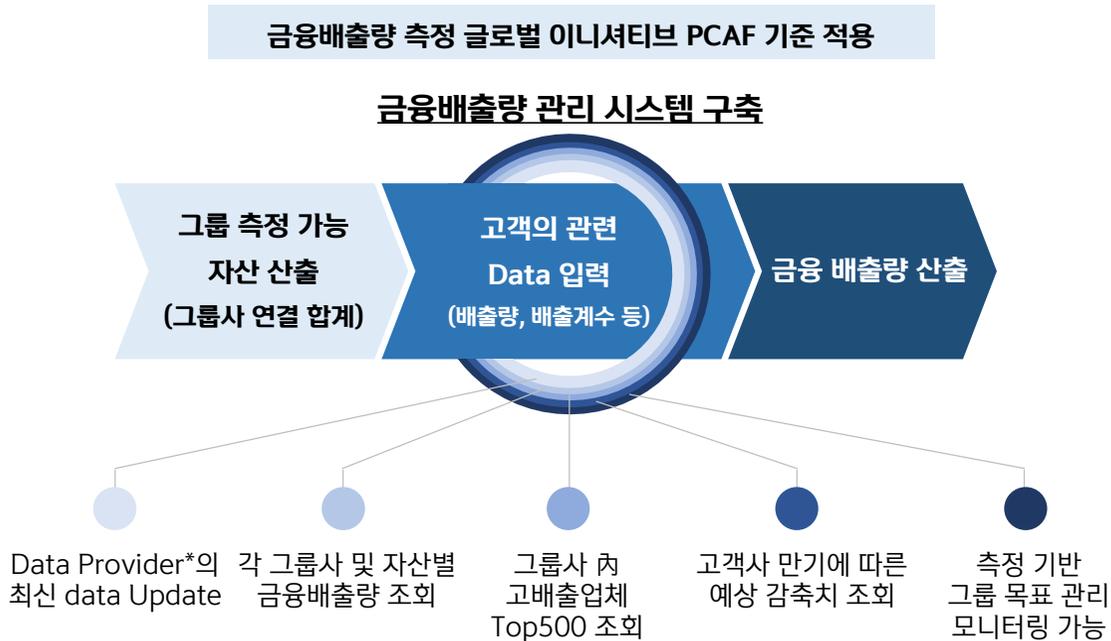
친환경 금융 지원

'30년까지
30조원 친환경 금융 지원



[참고] 신한금융그룹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

신한은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핵심 Key Factor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측정중,
이를 기반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 모델 작업을 지속 수행함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이란?

거래 기업의 총 배출량

X

신한의 대출/투자 금액

거래 기업의 총 자산

예시

2022년 기준 포스코의 배출량 7,560만톤, 총 자산 56조 중 신한이 대출/투자한 금액이 5.6조원이라면 신한은 금융배출량을 $7,560\text{만t} \times 5.6/56 = 756\text{만t}$ 으로 계산

2022년 말 기준 신한금융의 금융배출량

5,060만 t* / 측정자산 총 **248.6조원**

*단위는 tCO₂eq를 줄인 것으로, 모든 탄소 종류를 CO₂로 환산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③ 리스크 관리 : Zero Carbon Drive

기존 리스크관리 체계 內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 관리

특히 2022년부터 **고객 세분화 방안 정책을 통한 고탄소업종 정의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기후 리스크별 고객 세분화 방안

기후변화는 신한금융그룹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자산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영향의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고객 및 고객이 제공한 담보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신한은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고객 또한 이행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 관점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고, 두가지 유형을 결합하여 관리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행 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고객 세분화 구분

이행 리스크 관점의 고객 세분화는 규모·영위업종·탄소배출 공개여부·공개배출 증감여부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관리강도 수준을 5개로 구분하여 TRR1 ~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규모는 중요성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영위 업종은 신한금융그룹에서 정한 고탄소 업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탄소배출 공개여부는 배출권거래 기업 또는 자발적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고, 공개배출 증감 여부는 탄소배출을 공개한 기업 중 감축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물리적 리스크 식별·평가를 위한 고객 세분화 구분

물리적 리스크 관점의 세분화는 규모·담보 지역정보(자연재해 고위험 지역여부)·영위 업종(자연재해 민감업종 여부)·담보 규모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관리강도 수준을 4개로 구분하여 PHR1 ~ 4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규모는 이행 리스크와 동일하게 중요성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담보물 지역정보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며, 영위업종은 자연재해에 민감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이고, 담보 규모는 담보 부동산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구분	관리강도	세분화 요인			
		규모 ²⁾	영위 업종	탄소배출 공개	공개배출 증감 ³⁾
TRR ¹⁾ 1	상	일정규모 이상	고탄소 업종	공개	증가
TRR2	중-상			미공개	증가 외
TRR3	중-중	일정규모 미만	고탄소 외 업종	-	-
TRR4	중-하			-	-
TRR5	하	-	-	-	-

¹⁾ TRR: Transitional Risk Rating(이행 리스크 등급)으로, 낮을수록 관리 강도 높음을 의미

²⁾ 규모 기준: 금융배출량 50톤 미만 또는 익스포저 5억 원 미만 여부

³⁾ 공개배출 증감: 공개된 탄소배출이 2년 연속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신한금융그룹은 고탄소업종 선정을 통해 그룹의 금융배출량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고객 관리 및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고자 합니다. 고탄소 업종 선정 작업은 기본 지표로 금융배출량을 활용하여 2단계로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로는 금융집약도가 높은 산업 분류로 분류하였습니다. 익스포저 비중과 금융 집약도 순위를 고려하여 1단계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2단계로 신한은행 고위험업종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구분	관리강도	규모	담보 지역정보	영위 업종	담보 규모 ²⁾
PHR ¹⁾ 1	상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지역	위험 업종 ³⁾	-
PHR2	중-상			기타 업종	30억 원 이상
PHR3	중-하	일정규모 미만	기타 지역	-	-
PHR4	하			-	-

¹⁾ PHR: Physical Risk Rating(물리적 리스크 등급)으로, 낮을수록 관리 강도 높음을 의미

²⁾ 담보 규모는 담보 부동산 감정가액

³⁾ 위험 업종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 및 제조업, 건설업'임

신한금융그룹의 고탄소업종 관리

신한은 금융배출량, 익스포저 비중, 금융배출량집약도 등을 고려하여 고탄소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룹의 금융배출량 관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스크 관리 및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 신한은 고탄소 업종에 대해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특히 고탄소 업종 내에 배출량 비공개 고객의 경우 배출량 공개 및 지원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배출량 증가 추세인 고객의 경우 별도 심사 절차를 고려하고, 배출량 감소 또는 관리 중으로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전환금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고탄소 업종(표준산업분류 기준)	
화력 및 기타 발전업	
1차 철강 제조 및 주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증기, 냉온수 공급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석유 정제품, 화학섬유, 비철금속 제조업 등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④ 지표 및 관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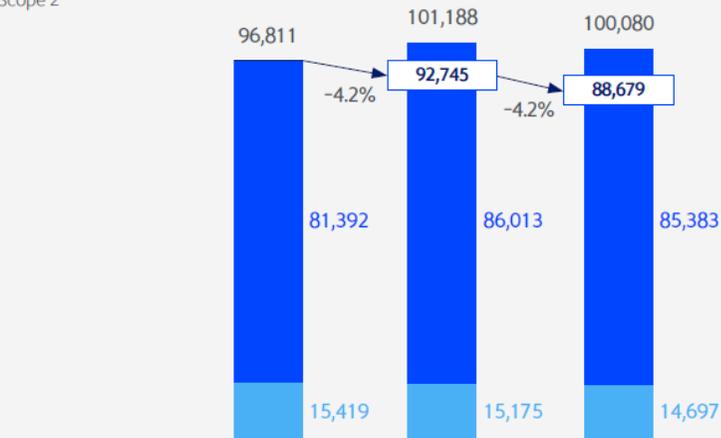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4.2%의 SBTi 감축 목표를 가지고 측정/관리 중이며,
금융배출량의 경우 과학적 기반의 감축목표를 의지적으로 표명, 모니터링하고 있음

내부 배출량 현황 (Scop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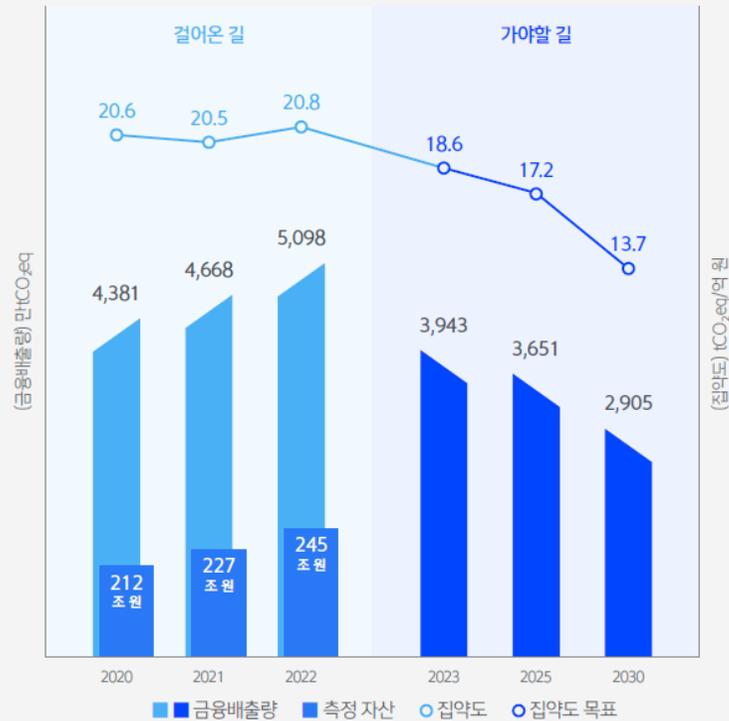
(단위: tCO₂eq)

금융배출량 현황(Scope 3)

■ Scope 1
 ■ Sco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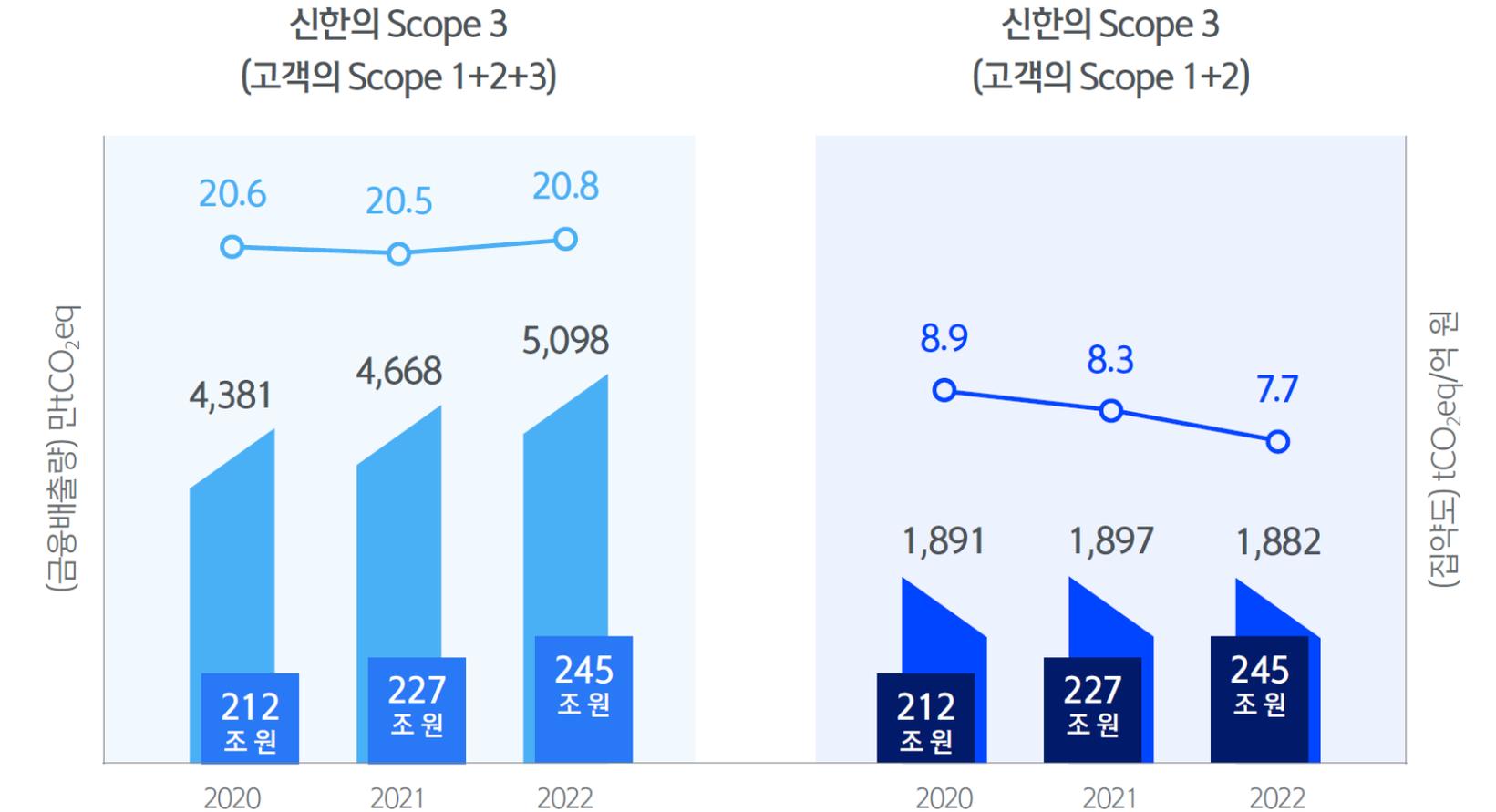


구분	2020	2021	2022
Scope 1	15,419	15,175	14,697
Scope 2	81,392	86,013	85,383
Scope 1+2	96,811	101,188	100,080
목표	96,811	92,745	88,679



2. 신한금융그룹의 TCFD 보고 - ④ 지표 및 관리 목표

금융회사의 Scope3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디까지 해석할 것인가는
향후 기후 공시에 있어 공동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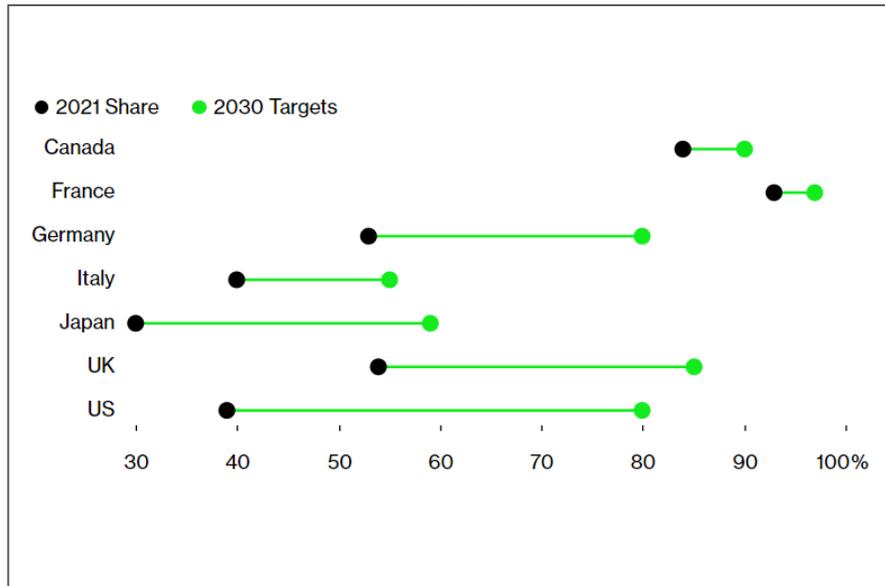
3

향후 기후 공시에 있어 금융의 역할

3. 금융의 역할 - I. 기후변화의 미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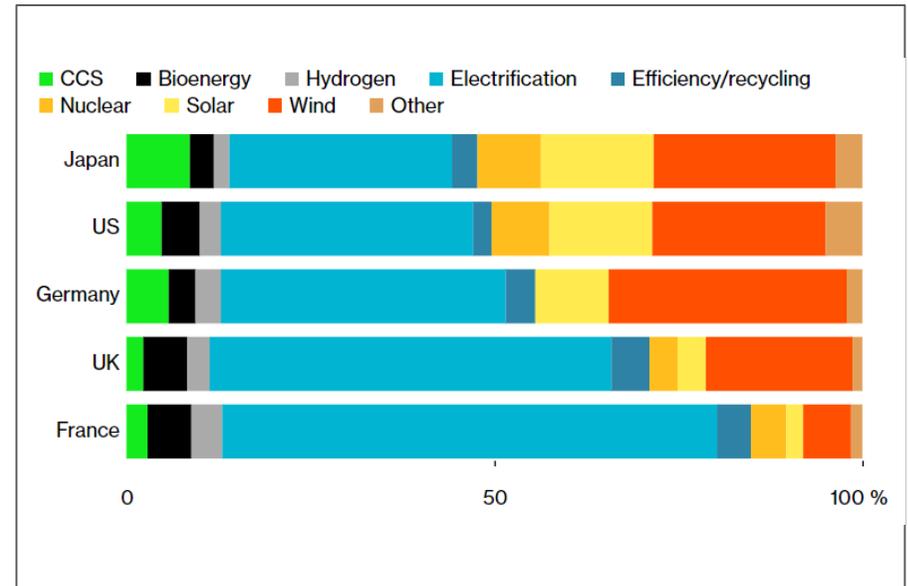
- 현재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30%, 국가 단위 발전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가스나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CCS(탄소포집 및 저장)을 통한 저감 계획을 제시
- 일본은 2030년에도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 비중이 19%에 달해 G7 국가 중 에너지 전환에 가장 뒤쳐진 모습
- 각국 정부와 환경 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G7은 결국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일본의 에너지 전환전략을 승인

G7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및 목표



자료: BNEF, 신한자산운용, 23년 4월 기준

국가별 넷제로 달성 방안 비중



자료: BNEF, 신한자산운용, 23년 4월 기준

3. 금융의 역할 - I. 기후변화의 미래 (2/2)

- 우리나라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계획¹⁾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발전 비중 42%, 2030년까지 19.7%**로 배출량 관리 필요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²⁾에서는 **발전 부문 감축이 2030년까지 45.9%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뿐 아니라 감축 기술 등에 대한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T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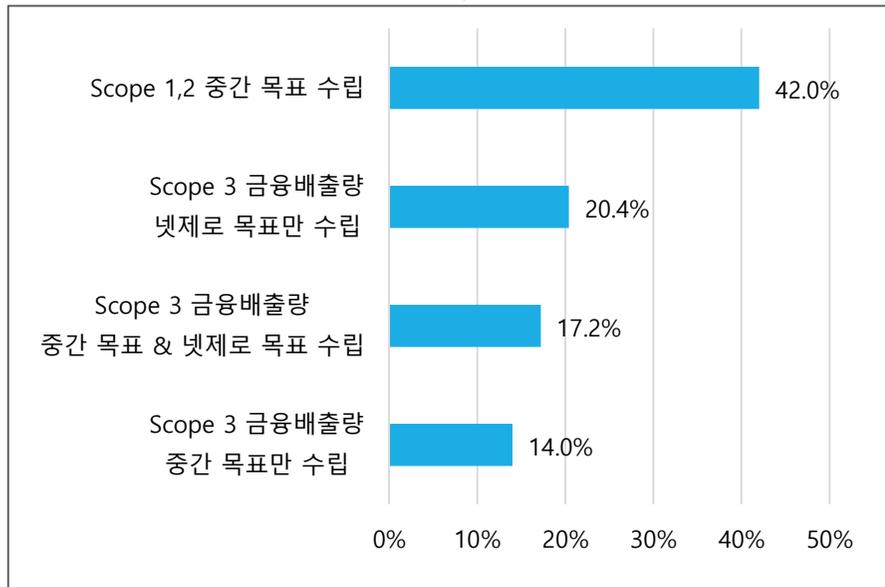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수소/암모니아	기타 ³⁾	계
2018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	9.7	570.7
	비중	23.4%	41.9%	26.8%	6.2%	-	1.7%	100%
2030	발전량	201.7	122.5	142.4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2036	발전량	230.7	95.9	62.3	204.4	47.4	26.6	667.3
	비중	34.6%	14.4%	9.3%	30.6%	7.1%	4.0%	100%

1) 산업통상자원부 (2023.1.12), 2) 관계부처 합동 (2023.4), 3) 기타는 유류, 폐기물, 부생가스 설비, 기타 저장장치 등

3. 금융의 역할 - Ⅱ. 금융의 역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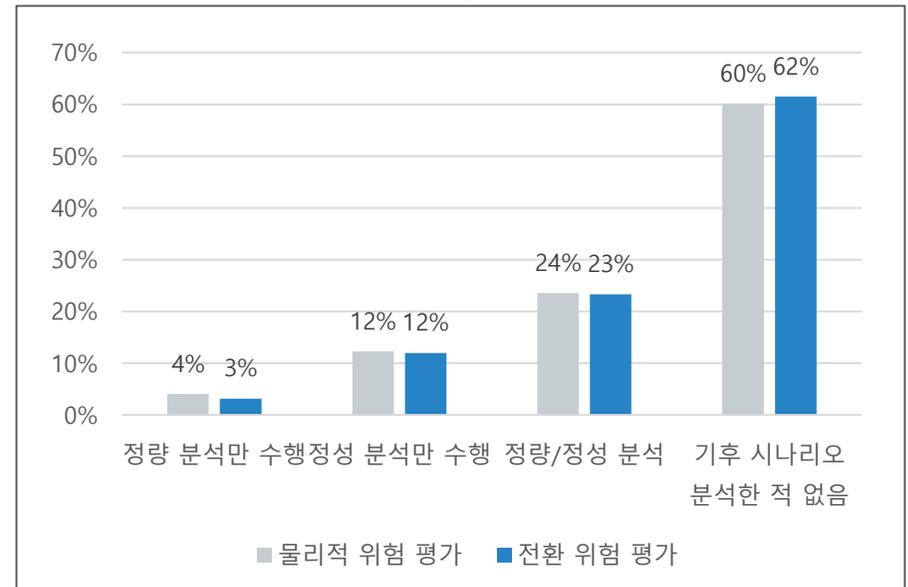
-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42%가 탄소 배출량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대출/투자 포트폴리오를 넷제로 목표와 연계한 비율은 20.4%로 절반 수준
- 특히, 금융기관들은 대출/투자 포트폴리오의 Scope 3 간접 배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CDP의 추정에 따르면, **금융산업의 Scope 3 배출량은 Scope 1+2 배출량보다 700배 더 많아 Scope 3 비중 절대적**

금융기관 배출량 목표 수립 현황



자료: S&P Global, 신한자산운용, 23년 5월 기준

금융기관의 기후 시나리오 분석 현황



자료: S&P Global, 신한자산운용, 23년 5월 기준

3. 금융의 역할 - Ⅱ. 금융의 역할 (2/2)

탄소배출량 Data를 정확히 얻을 수 있다면 **ESG 정보는 앞으로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 영역**이 될 것

예시

ESG Data 활용, 기업 탄소감축 의지(Willingness)와 전망(Opportunity) 기반 거래정책 수립(案)

☞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시가 확대되면, 매출액과 탄소배출량을 결합하여 해당 기업/업종의 탄소배출량 추이를 산출하고 기업 대상 탄소감축의 비교표준을 구축, 체계적인 기업별 거래정책 수립 가능





Shinhan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고맙습니다 😊